



멈추지 않는 총기 사고

새해 첫날부터 저희 동네의 밤거리는 총기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총기 사고. 이 동네 출신인 젊은 친구는 꿈꿨던 얼어붙은 겨울 밤, 뜨거운 피를 쏟으며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요. 새해 벽두에 시작한 이런 의미없는 폭력은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고질병과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총기를 구할 수 있는 미국의 느슨한 총기 관련 법안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갇혀 살았던 젊은이들. 그들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미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그리고 개인마다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상처들.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길 경우, 건강하게 해결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사소한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일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라고 가르치지만 폭력이 일상화된 빈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마저도 누가 건드리면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다시는 시비 걸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라고 가르치는 현실 속에서 화해와 용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총기 사고를 예로 들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친지 중 누군가를 총기 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총기 사고의 원인이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총기 사고는 모든 아이들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집단적 트라우마이기 때문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올 해 같은 기간 동안 작년보다 훨씬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빈민가를 지옥으로 내버려두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교의 시설이 낙후되어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율이 60%가 넘습니다. 집주인들이 관리를 안해서 제 이웃들이 세들어 사는 곳은 냉장고가 없거나, 샤워를 할 수 없거나,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사소한 일로 - 밀린 주차 티켓, 대마초 소지 등 - 중형 (1년 이상 선고) 판결을 받으면 취직할 수도 없고, 주택 보조, 의료 보조, 푸드 스탬프 등 모든 정부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보니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 사이에 널뛰기를 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해서 쉽게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몇 십명이 희생당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관련 법안을 좀 더 엄격하게 보강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지만, 항상 수정 헌법 제 2 조를 이유로 시민들의 요구가 좌절당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총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총기를 소지할 경우 위험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논의를 압도하는 이유 총기 관련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총기 사고에 희생될 가능성이 가장 적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같은 빈민가에서는 거의 매일 밤 어디에선가 총기 사고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됩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 사는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어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총기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도와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제 이웃들. 이 분들은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수호 천사들입니다. 함께 치과에 갔던 날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치과 선생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료 치과 진료

작년 가을 어떤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보내주신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연락하셨다면서 자신을 뉴저지에 사는 치과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제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 생각이 떠올랐다면, 한 달에 하루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자신이 임플란트 전문이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요! 치과 진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엄두를 못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선물같습니다. 일단 보험이 없는 이웃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진료하는 날, 여섯 명의 이웃과 함께 이른 아침 저희 집 앞에서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뉴저지에 있는 치과로 향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요기도 하니 마치 소풍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요리사!

저희 동네는 흔히 “Food Desert” (식품 사막) 이라고 불립니다.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 없고,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서는 햄버거, 닭튀김, 감자튀김 정도만 팔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여러가지 질환에 시달립니다. 주로 이런 음식을 사먹는 아이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 소아 당뇨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두 주에 한 번 요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썸머 캠프를 도와주던 Susan Nam이 제안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시간입니다. 칼을 어떻게 잡는지, 닭고기는 어떻게 익히는지, 야채는 어떻게 다듬는지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씩 배우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채와 탄수화물,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이 조화된 다양한 식단들.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 호기심을 가지

치과에 도착해서 유쾌하고 친절한 간호사의 안내로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들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행 중에는 보험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치과 진료 받는 것을 미루고 꺼리다, 이번 기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혜택이 누구에게는 특혜가 됩니다. 피부색과 옷차림만으로도 차별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제 이웃들이기에 어떤 분이 친절하게 치료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자 편한 마음으로 함께 오신 셈이지요.

대부분 증세가 심각해서 선생님께서는 여러번 진료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과 2월 두 번 진료를 받았는데, 3월부터 코비드 19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면 가끔 언제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묻곤 합니다. 곧 치과 진료를 위해 다함께 뉴저지로 소풍 갈 날이 오겠지요. 그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고 먹어보기도 합니다. 평소에 먹어본 spaghetti meatball 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이 사먹는 음식보다 맛있다고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이들에게는 상식과 같지만, 신선한 식료를 구하기 어려운 빈민가에 사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위해 손쉽고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식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COVID 19 테스트



제가 이사로 섬기는 단체 중에 Esperanza Health Center - esperanzahealth.com - 라는 기독교 비영리 병원이 있습니다. 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빈민가에서 누구나 - 보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불법 체류자도 -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술을 베푸는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4월 말 부터 홈리스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밀집된 컨싱턴에서 증세가 있는 사람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제 역할은 검사를 마친 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일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기도를 하는데, 한 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흔쾌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경책과 매일 성경 같은 책자도 구비해 두고 원하는 이들이 가져가도록 했는데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가지고 갔습니다.

거리에서 숙식을 하니 당연히 손을 씻을 수도 없는 이들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여러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이지 너무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홈리스라고 무시하고 멀리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에게 주님께 하듯 성심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 해드린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 동네에는 아직도 이렇게 쇠락해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것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핍. 그래서 삶이 더욱 고달픕니다. 이사가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금식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인터넷 서비스 부재

3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모두 휴교를 했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당국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을 못받는 학생이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무상으로 노트북을 나누어주어도 인터넷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요금. 이 제 이웃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터넷 회사에서는 저임금 가정을 위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료”가 완전 무료는 아니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숙제를 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 숙제를 내 주더라도 학생들에게 꼭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도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시 한번 빈부 격차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식료품 배급

코비드 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시민들을 위해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여러 단체를 통해 식료품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월, 수, 목, 일주일에 사흘 누구든지 필요한 이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몇 교회와 지인들께서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필요한 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고, 자원 봉사자들을 도와서 박스를 나르고, 배급을 받으러 온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서로를 돕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로 상하지 않는 식료품인 통조림, 파스타 등을 나누어 드립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야채, 과일, 계란, 우유 같은 품목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개와 고양이 사료, 아이들을 위한 초콜릿과 과자, 때로는 케이크도 제공합니다.

제가 하는 거라곤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태는 일 정도인데 제 이웃들은 목사님이 수고한다며 좋아합니다 - 사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섬기는 분들 가운데 제가 유일한 동양인, 그리고 유일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주일에 세 번 이웃들을 만나서 안부도 묻고 아이들 소식도 들으니 감사할 뿐이지요.

썸머 캠프?

이웃들은 벌써부터 올해도 캠프를 진행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아쉽게도 올 여름에는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캠프를 못하는 대신 점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18세 미만 청

소년들에게 공급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코비드 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일 점심을 공급합니다.

점심 시간이면 아이들이 식사를 받으러 올 텐데 그 짧은 시간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동도 서관처럼 아이들에게 읽을 책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삼월부터 시작된 배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네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연말까지 상황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하며 어떨까 그 때까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매 주 배급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드러낸 또다른 빈부격차의 현실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집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줄지 않았습니 다. 반면 저희 동네 이웃들은 일하던 직장 - 주로 서비스 직종 - 이 문을 닫아서 실직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essential workers.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더 큼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만 배급을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 출신 이민자들, 중국 이민자들, 인도 이민자들, 그리고 무슬림 이민자들. 코비드 19로 삶이 어려워진 여러 인종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봉사자 중에는 독거 노인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데다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꼭꼭 못하는 분들. 그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세 번 자신을 찾아주는 봉사자가 천사와 같은 존재겠지요.

혼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모두들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점심을 제공할 동네 할머니들, 캠프 때마다 저를 도와서 함께 수고한 스태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입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울 예정이었는데, 3월 중순부터 학교를 못 간 저희 동네 아이들이 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신 하나님께서 올 여름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던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후 목사

267-858-2842 | TAEHOOLEE123@GMAIL.COM

후원계좌 : 하나은행 364-910459-67107 이태후 | NORTH PHILLY COMMUNITY CHURCH 2147 N. UBER ST. PHILADELPHIA, PA 19121